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여성들의 자아 인식과 결혼간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lf-Recognition and Marriage

저자 (Authors)	박주은 Park Joo Eun
출처 (Source)	현대영어문학 31(4) , 2013.11, 203-225(23 pages) 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31(4) , 2013.11, 203-225(23 pages)
발행처 (Publisher)	현대영어문학회 The Association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64315
APA Style	박주은 (2013).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여성들의 자아 인식과 결혼간의 관계. 현대영어문학 , 31(4), 203-225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11.48.46.*** 2020/01/08 16:3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현대영미어문학』 제31권 4호
(2013) 가을 203-225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여성들의 자아 인식과 결혼간의 관계*

박 주 은
(상명대학교)

Park Joo Eun,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lf-Recognition and Marriage" *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31.4 (2013): 203-22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lf-recognition and marriage in *Pride and Prejudice*. There are two steps in self-recognition. First, there is the immature step. This includes the self-recognition of Jane, Lydia, and Charlotte. Jane has a passive self; she cannot express her feelings to Bingley. Lydia doesn't have self-recognition. She disappeared with Wickham in the middle of the night due to a lack of reason. Her behavior is not influenced by love, but by her temporary feelings. Charlotte wants economic stabilization through marriage. She does not know Collins, nor does she consider her feelings in deciding to marry. The second step is known as the mature step. This includes the self-recognition of Elizabeth. She has a positive self, and expresses her feelings and opinions well. She also comes to realize her misjudgment of Darcy and Wickham. She attains the mature step in self-recognition through Darcy's letter and his speech, while affecting his self-recognition as well. They at last have love and a mutual relationship. Jane, Lydia, Charlotte, and Elizabeth make their choice of spouses depending on their respective self-recognition. (Sangmyung Universtiy)

Key Words: Self-Recognition, Marriage, Immature Step, Mature Step, Positive Self

I. 서론

* 이 논문은 2012년도 상명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은 18세기 말기부터 19세기 초반에 걸친 30년 동안 감정과 상상력이 강조된 낭만주의 시대에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 특히 사랑과 결혼을 소재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소설가이다. 그녀는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 『에마』(Emma)를 포함한 여러 편의 소설에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시골의 젊은 여성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남자들 사이의 관계와 결혼을 소재로 택한다. 이 소재는 『오만과 편견』의 첫 문장을 통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재산이 많은 미혼 남자가 아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인정된 하나의 진리이다.”로 시작한다(1). 이 의미는 미혼 여자가 재산이 많은 남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여자가 필사적으로 남자를 쫓는 것은 여자에게는 청혼이 경제적 생존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여성의 가장 큰 행복은 부자와 결혼하는 것이고, 여성들은 자아 인식의 성숙도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자아 인식’의 성숙도란 얼마나 자신의 사고, 감정, 의지 등을 잘 인식하고 행동하며 표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타인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 자아 인식 성숙도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크게 결정되는 것은 통념적으로 첫째, 직업을 가지는 것이고, 둘째,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첫 번째 요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단지 여성들이 교양을 쌓는 일을 할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작품 전체에 걸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 이 결혼 요소는 그 당시의 결혼관을 잘 보여 주며 여성이 부자와 결혼하는 모습이 남성 세계에 속한 여성의 곤경, 구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관습과 여성이 개성이나 재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회 통념을 반영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제인 오스틴은 풍자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 결혼에 있어서 낭만적인 사랑의 중요성이 표방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중시되는 것은 경제력이라는 현실에 대한 풍자를 함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그녀는 등장인물들의 외부에 노출된 약점 등을 먼 거리에서 재미있는 웃음을 섞어 나타내고 18세기의 결혼관을 보여준다. 18세기 결혼관은 첫째,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의 상속이 집안의 남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사상속제**이다. 둘째, 차남 이하의 아들은 상속 재산이 있는 여자와 상속 재산이 없

¹ 한사상속제란 재산 상속 조건에 제약이 있다는 뜻이다. 베넷가의 토지는 ‘상속이 남자로 한정

는 딸들은 재산과 지위를 가진 남자와 결혼하는 관례이다.

이와 같은 결혼관을 가진 등장인물들은 신분에 맞추어 어휘를 사용하고, 다채로운 개성을 지닌 인물들로 변화하고 발전한다. 이러한 등장인물의 변화와 발전은 제인 오스틴의 자연스러운 줄거리 전개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비평가들은 제인 오스틴의 플롯이 완벽하다는 평을 한다. 특히 리비스(F. R. Leavis)는 그녀의 위치를 “영국 소설의 위대한 전통의 창시자”(the inaugurator of the great tradition of the English Novel)라고 높이 평가하였다(16). 그 이유는 제인 오스틴이 소설 형식을 매우 기술적으로 정립하였고, 일상생활 속에 표현되는 인간성을 깊이 관찰하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영국 시골 읍의 중상류층 사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인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따라 전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영국 소설의 위대한 전통의 창시자라고 평가 받는 오스틴의 소설들의 인기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수많은 작품이 계속 각색되어 출판되었고 영화와 텔레비전 시리즈도 여러 차례 제작되었다. 그녀의 대표작인 『오만과 편견』은 영국 BBC에서 2003년에 ‘영국인이 가장 사랑한 책’ 설문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고전이 현대에 이르러서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한국 학계에서도 문학숙, 김현희, 김현숙, 그리고 조일현 외 많은 학자들이 이 작품에 대한 주제나 작품 속에 작가가 사용한 아이러니나 위트를 통해 풍자하는 방식과 같은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이 작품에 나타난 조화의 세계, 결혼, 여성의 경제 행위로서의 결혼-사회적 필요성과 개인적 도덕성의 갈등 등의 논문 주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연구의 공통 주제는 『오만과 편견』이 결혼을 다룬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자아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부유한 남자와의 결혼이 유일한 경제적 안정의 길로 간주하고 자신만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일도 찾지 않으며 결혼을 통해 얻은 남편의 지위로 여성 자신도 같이 올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주인공인 엘리자베

된’ 한사상속 재산이다. 재산이 장남에게만 상속되고 아들이 없을 경우 현 소유자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상속하도록 하는 한사상속은 당시 널리 행해진 관습법이었다. 콜린즈씨의 경우처럼 먼 친척이 전액 상속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복잡한 양도 절차를 거쳐 계약이 체결되곤 했다.

스(Elizabeth)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자아 인식에 도달하게 되고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언니 제인(Jane)과 동생 리디아(Lydia), 그리고 친구 샬롯(Charlotte)은 자아 인식 정도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 작품에 나타난 여성들의 자아 인식과 결혼간의 관계라는 주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첫째, 순수함과 미숙함의 불완전한 결합이라 할 수 있는 제인과 빙리(Bingley)의 관계에서 본 제인의 자아 인식 단계, 둘째, 무분별하고 비열한 결합이라 할 수 있는 리디아와 위컴(Wickham)의 관계에서 본 리디아의 자아 인식 단계, 셋째, 조건만으로 이루어진 비낭만적인 결합이라 할 수 있는 샬롯과 콜린즈(Collins)의 관계에서 본 샬롯의 자아 인식 단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오만과 편견을 극복한 성숙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와 다아시(Darcy)의 관계에서 본 엘리자베스의 자아 인식 단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미성숙한 자아 인식 단계: 제인, 리디아, 샬롯의 자아 인식

제인 오스틴의 문학 세계는 일상생활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 생활의 소소한 일들을 냉정하고 신중하게 이해심을 가지고 묘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정된 시골 귀족 계급과 젠트리 계급의 세계를 묘사하였다. 이는 그녀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부모는 젠트리 계급에 속했고, 젠트리 계급에서 귀족 계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급의 친척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으로 제인 오스틴이 나타난 영국의 장면은 국한된 지방과 시골 상류 계급의 세계이다. 그녀가 자신의 세계를 시골의 일상 생활로 그 범위를 한정시킨 것은 이 배경이 그녀의 주제를 다루는데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품 세계를 지닌 그녀의 소설에 일관하여 흐르고 있는 주제는 자아 인식이고, 이 자아 인식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성들과 남성들의 관계에서 그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제인 오스틴은 인간의 내면성에 관심을 가져 여주인공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 오판의 원인이 자신 내부에 있음을 인식하도록

줄거리를 전개한다. 루이스(C. S. Lewis)는 제인 오스틴의 여주인공들에게 제시되는 주제를 ‘하나의 각성’이라 표현하였다(Ian Watt 26). 여주인공들은 실수를 저지르고 고통을 받고 그것을 통해 각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주제로 몇 가족 간의 교류, 특히 엘리자베스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어 정찬, 무도회, 음악회, 초대, 이웃집 방문, 여행 등 평범한 인간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를 관찰하여 참다운 인간성을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우선 엘리자베스의 언니 제인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녀의 자아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인은 베넷(Bennet)가의 장녀로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덕목을 충실히 따르는 순종적인 인물로 그려지며, 모든 사람을 좋게만 보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 한다. 동생 엘리자베스의 다음 대화를 통해 이러한 제인의 성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는 “아, 언니는 사람을 너무 쉽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결점을 잘 보지 못해. 언니 눈에는 온 세상이 다 착하고 상냥해. 나는 지금까지 언니가 누구 흉을 보는 걸 들은 적이 없어.”(9)라고 언니 제인의 성격에 대해 언급한다.

엘리자베스는 언니 제인을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단점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사람들 성격에서 좋은 점을 더 좋게 보고 나쁜 점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식이나 다른 속셈 없이 착한 것을 언니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확하게 언니의 성격을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제인의 성격은 빙리와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인은 무도회에서 빙리와 두 번 춤을 춘 뒤 엘리자베스에게 빙리를 분별 있고 다정하고 유쾌하고, 예의범절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태도에서 그녀가 빙리와 대화를 나누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빙리의 겉으로 보이는 좋은 점만 파악한다.

반면에 빙리는 잘 생기고 신사답고 호감 가는 표정에 태도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며 무도회장의 주요 인사들과 빠짐없이 인사할 정도로 사교적이며 유쾌하고 솔직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리고 빙리는 허스트부인(Mrs. Hurst)의 제인에 대한 험담을 상관하지 않고 제인을 쉽게 사랑한다. 허스트부인은 제인이 사

랑스럽고 결혼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제인의 부모나 일가친척이 별 볼 일이 없다며 제인의 이모부가 사무 변호사로 있고 외숙부도 런던 첵사이드(London Cheapside)에 산다며 계급적으로 열악해 제인을 비롯한 자매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빙리는 첵사이드 전체가 베넷 양 숙부들로 가득하다고 해도 저 두 자매들의 매력은 조금도 줄지 않는다며 사회 계급의 차이를 중시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제인을 쉽게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제인은 자신의 감정을 빙리에게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빙리를 놓치게 된다. 소극적인 제인에 대해 샬롯은 엘리자베스에게 “애정 관계는 대부분 감사하는 마음이나 허영심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 시작은 가볍게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약간의 호감은 자연스러워. 하지만 상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도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드물어. 대개의 경우 여자 쪽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호감을 표현하는 게 좋아. 빙리가 제인을 좋아하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하지만 제인이 빙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확신을 주지 않으면 그저 좋아하는데서 그칠 수도 있다는 거지.”라고 충고의 말을 한다(13-14).

엘리자베스는 이와 같은 샬롯의 타산적인 충고를 제인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그녀는 제인이 결혼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행동하지는 않는다면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옹호해 준다. 이와 같은 엘리자베스의 태도는 제인의 자아 인식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제인을 두고 빙리는 다아시의 충고로 인해 런던으로 떠나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빙리는 친구의 충고 한 마디에 생각을 해 보지도 않고 자신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제인은 빙리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말이나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아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표현력이 부족한 인물이다. 후에 제인과 빙리는 서로 그리워하며 전혀 만날 생각도 못하고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도움으로 사랑을 얻는다. 한 마디로 제인은 자신의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랑을 찾는 수동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리디아와 위컴의 관계에서 본 그녀의 자아 인식 단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리디아는 철없고 허영심이 많은 엘리자베스의 동생이다. 그녀는 튼튼하고 성숙한 열다섯 소녀로, 안색이 곱고 표정은 다정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리디아를 각별히 예뻐해서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사교계에 내 보냈다. 리디아의 발랄한 행동과 자신감은 이모부인 필립스가의 훌륭한 정찬과 그녀의 거리낌 없는 태도에 매혹된 장교들에 관심을 받으면서 지나치게 부풀어 올랐다(31). 리디아가 막내 동생 캐서린과 장교들에 대해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딸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멍청한 처녀 같이라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우리는 아버지의 태도를 통해 리디아가 단지 군복 입은 장교들의 겉모습에만 현혹되어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장교들만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생각이 없고 판단력이 부족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딸을 둔 아버지는 딸을 전혀 교육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딸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만 할 뿐 수동적인 자세로 전혀 어떠한 조치도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결국 리디아는 위컴과 야반도주하여 결혼한다. 그녀는 일시적인 정열과 감정에 의한 결혼을 선택할 정도로 전혀 자아 인식이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컴의 성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컴은 미남이고 매너가 좋은 편이고 좋은 군인처럼 보이니 돈을 밝히는 속물적인 인물이다. 다아시는 위컴에게 돈을 줌으로써 리디아의 명성을 살려주고 그녀의 가족의 재정난에서 구해주며, 자아 인식이 없는 리디아는 타인의 도움으로 불행의 길에서 벗어나 결혼이라는 관례에 편하게 따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샬롯과 콜린즈의 관계에서 본 샬롯의 자아 인식 단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샬롯은 엘리자베스의 친구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콜린즈와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하는 인물로 타산적이다. 그녀가 엘리자베스에게 하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그녀의 결혼관을 파악할 수 있다.

너도 내가 한 일에 만족하길 바래. 알다시피 난 로맨틱한 여자는 아니야. 그래 본 일이 없거든. 난 다만 안락한 가정을 구하고 있는 것 뿐이야. 콜린즈씨의 성

격이나 사회적 배경,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 곁에서 행복을 얻을 가능성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확신해.

I hope you will be satisfied with what I have done. I am not romantic you know. I never was. I ask only a comfortable home; and considering Mr. Collins's character, connections, and situation in life, I am convinced that my chance of happiness with him is as fair, as most people can boast on entering the marriage state. (88)

이와 같이 샬롯은 경제적, 사회적 악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결혼으로 간주하고 목사라는 안정적 지위와 적당한 수입을 가진 콜린즈가 그녀에게 매우 적합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녀는 콜린즈를 선택한 것이다. 이 선택에 대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8세기 말, 19세기 초 영국 사회이고, 역사적 사건인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영국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남성중심사회였다. 이 시기에는 근대 이후 전에 없던 규모로 상업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직종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의 활동 영역은 축소되었고 사회적 가치가 금전으로 획일화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평가도 더욱 하락하였다. 그러므로 샬롯은 결혼이라는 안정된 기회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을 한 샬롯에 대해 마샤 사츠(Martha Satz)는 그녀가 모든 다른 고려를 경제적 고려에 종속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으로 평한다(181).

이에 대해 김현숙은 재산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을 포착하고 있는 인물이 베넷부인이고, 그 부인의 사고는 사실상 당대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풍조를 대표하는 것인데 샬롯은 바로 그런 전통적 개념의 결혼을 수용하는 여성으로 간주한다(9). 한마디로 샬롯은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경제적 안정만 추구하는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인물로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고 배우자의 결점도 되도록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해서 거절당한 콜린즈와 교제나 대화도 없이 바로

결혼을 승낙할 정도로 단순한 자아 인식을 하는 인물에 불과하다.

III. 성숙한 자아 인식 단계: 엘리자베스의 자아 인식

엘리자베스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관찰하고 평가하는 입장을 보이는데 도로시 반 겐트(Dorothy Van Ghent)는 그녀가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대조되는 “정감 있는 지성과 날카로운 도덕적 감수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107). 그녀는 반 겐트의 설명처럼 지성과 감수성을 겸비한 인물로 이성을 강조한 18세기 신고전주의시대와 감정을 강조한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문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훈과 즐거움, 낭만적 사랑, 그리고 현실에 대한 풍자를 보여 준다.

이러한 엘리자베스는 활발하고 총명한 숙녀로 ‘편견’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여성 인물 중 유일하게 자아 인식 과정이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이 인식 과정에서 그녀는 제한된 공간인 집에서 벗어나 산책과 여행을 하면서 자연을 통해 자신의 판단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모습은 구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편견이 깨어지고 오해가 풀리면서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처음에 그녀는 무도회에서 만난 다아시의 태도에 그가 오만한 사람이라고 단정한다. 다아시는 매우 부유하고 미남인 신사로 상대적으로 계층이 낮은 엘리자베스의 결점을 관찰하다가 오히려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녀에게 청혼하지만 무참히 거절당한다. 다음날 그녀에게 솔직한 편지를 써서 다아시에 대한 그녀의 편견을 깨뜨리는 인물로 ‘오만’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 소설에서 엘리자베스의 자아 인식에는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의 그릇된 모성, 다시 말해, 딸들을 좋은 집안에 시집보내는 것이 목표로 딸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해력이 보잘 것 없고 견문도 좁고, 성미는 종잡을 수 없고 불만에 차면 그게 자신이 신경과민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낙은 이웃을 방문해서 소문을 듣고 퍼뜨리는 수다스러운 인물이다(3).

그리고 그녀는 교양도 없고 그녀의 딸들 결혼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편한테 새로 이사 온 빙리를 찾아 가서 미리 인사를 하라고 강요한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관습이었던 한사상속제 때문이었다. 베넷 씨의 재산은 연간 2천 파운드가 나오는 영지가 거의 전부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재산은 남자 후손이 없을 경우 어느 먼 친척에게 한사상속하게 되어 있었다(18). 이 관습법을 따르면 베넷가에는 딸이 다섯으로 상속 받을 아들이 없고 대신에 친척인 콜린즈가 상속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딸 중 한 명과 콜린즈를 결혼 시키고자 했다. 그녀는 콜린즈에 대해 사촌이라는 것 이외에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콜린즈는 오만하고 비굴하고 캐서린 부인에게 아침하는 인물로 베넷가의 딸 중 제인을 낙점했다가 베넷 부인이 제인이 곧 약혼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하자 갑자기 엘리자베스로 상대를 바꾸는 변덕스럽고 즉흥적이고 신중함이 부족한 인물이다. 콜린즈의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베넷부인은 그의 순간적인 배우자 결정을 묵인한다.

그녀의 모성은 단지 딸의 사랑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도움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비생산적이고 그릇된 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성은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결혼이라는 제도에 무조건적인 순응을 강요하도록 하게 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딸을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고 필요에 의해 딸의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의도가 엘리자베스의 자아 인식을 방해한다. 예를 들어, 콜린즈가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할 때 당사자에게 먼저 결혼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그녀의 엄마에게 먼저 알려 엘리자베스의 배우자 선택에 대한 자유 의지를 꺾고 무조건적으로 청혼을 받아들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엘리자베스가 콜린즈의 청혼을 거절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그녀에게 말한다.

내 청혼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된다거나 내가 제의한 가정생활은 그다지 훌륭한 것이 못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지위라든지, 드 버그 맥과의 관계, 또 맥과의 인연 등은 내게는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 그러므로 나를 거절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아한 여성의 관례에 따라 상대의 마음에 불안감을 조성해서 제 사랑을 더 키우려는 소망으로 여기겠습니다.

It does not appear to me that my hand is unworthy your acceptance, or

that the establishment I can offer would be any other than highly desirable. My situation in life, my connections with the family of De Bourgh, and my relationship to your own, are circumstances highly in my favor ... As I must therefore conclude that you are not serious in your rejection of me, I shall choose to attribute it to your wish of increasing my love by suspense, according to the usual practice of elegant females. (76)

이 대사를 통해 제인 오스틴은 콜린즈의 가장 속물적인 면과 허례허식을 보여주고 그녀가 비판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 즉 결혼 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이란 남자들의 지위, 여성들의 미모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호기를 놓친 가난한 노처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매우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엘리자베스의 어머니가 딸에게 그 당시의 결혼제도와 관습에 복종하는 수동적인 자아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엘리자베스는 여러 과정을 통해 여러 인물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자신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매애이다. 이 자매애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매애는 여성이 남성의 부차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체적인 존재로 서게 해 주며, 남성들에게 억압당한다는 점에서 같은 처지에 놓인 여성들이 대동단결하는 출발점이자 방식을 뜻한다(한국 여성연구소 47). 이것은 종속적인 위치에 처한 여성들이 받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만의 모임을 만들어 서로 고통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여성만의 모임은 베넷가의 다섯 자매들의 모임으로 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녀들의 긍정적인 자매애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인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언니 제인이 엘리자베스의 고민을 해결 해 주지는 못하지만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보면,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와 자신 사이에 벌어진 주요 사건을 제인에게 이야기 한다. 구체적으로 엘리자베스가 다아시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거기에 담긴 내용이 위컴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제인은 엘리자베스에게 다아시의 고통을 생각해

보라고 하며 연민을 보이고 엘리자베스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컴의 본래 모습을 알려주는 게 나올지 묻자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밝힐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조언을 한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자신의 고민, 속상한 마음을 털어 놓고 편안해 한다.

반면에 제인은 빙리가 무도회에서 처음 보고 춤을 추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주 만나다가 어떠한 설명도 인사도 없이 런던으로 떠난 빙리를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 빙리의 동생 캐롤라인(Caroline)은 빙리가 다아시양에게 호감이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제인에게 보내어 빙리에 대한 제인의 마음을 단념시키려는 의도를 보인다. 이 때 엘리자베스는 캐롤라인의 의도를 파악하여 제인에게 알려주고 사랑의 마음을 응원해 준다.

이와 같이 엘리자베스와 제인은 다른 자매들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청자와 상담자 역할을 하며 보다 더 강한 자매애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각자의 자아 인식을 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셋째, 편지의 역할이다. 등장인물들, 특히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사실을 인식하게 해 주고 자아 인식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편지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다아시와 엘리자베스의 관계를 살펴보고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자아인식을 하는지 초점을 두어 살펴보겠다.

이 작품 속에서는 인물간의 대화와 편지가 줄거리를 이끌어 가는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등장인물들은 편지로 장거리 업무를 보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며, 편지를 통해 오해를 풀고 자신의 뜻을 전하기도 한다.

우선 제인 앞으로 온 캐롤라인의 편지는 런던으로 빙리가 떠났고 그가 다아시 양에게 호감이 있다며 빙리에 대한 제인의 마음을 단념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때 엘리자베스는 편지 내용의 숨은 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인에게 알려준다. 엘리자베스는 빙리가 제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믿게 하려는 캐롤라인의 의도라며 제인 보고 빙리가 자신의 매력에 둔감해졌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를 한다. 이와 같이 엘리자베스는 언니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당당한 자아 인식의 모습을 보여 준다.

구체적으로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부인과 동생들의 사교계 진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힌다. 캐서린 부인은 언니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생들이 사교계에 전부 진출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에 엘리자베스는 언니들이 일찍 결혼할 수단이나 의사가 없다고 해서 동생들이 사교계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막내도 만이 못지 않게 젊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115).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점에서 레이첼 브라운스타인(Rachel Brownstein)의 평처럼 엘리자베스는 최초의 페미니스트라 할 수 있다(54). 이에 대해 야스민 구너튼(Yasmine Gooneratne)은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의 청혼을 거절하는 것은 그녀의 정신적 독립심과 도덕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평한다(84, 87). 그리고 조일현은 그녀의 자아실현 의지가 위트라는 형식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153).

이러한 평에 합당한 또 하나의 예는 다아시의 청혼을 거절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가 제인 언니와 빙리를 갈라놓아서 그들의 행복을 짓밟아 놓았고 위컴을 가난한 상태로 몰아 놓았기 때문에 그의 청혼을 거절한 것이다. 다아시는 자신에 대한 그녀의 평가에 대해 자신의 과오가 무겁다며 모든 종류의 가식을 싫어하고 고백한 감정도 부끄럽지 않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에 엘리자베스는 마음의 혼란을 겪지만 아직까지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아시가 엘리자베스에게 직접 두고 간 편지는 그녀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편지 내용에는 다아시의 두 가지 해명이 담겨 있다. 첫째, 양자의 감정을 무시하고 빙리를 제인에게서 떼어 놓았다는 것이고 둘째, 위컴의 현재의 행복을 파괴하고 미래의 전망마저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해명은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와 세 동생이 경우 없는 처신을 하여 그녀의 가족들에 대한 판단이 더욱 확고해졌고 빙리가 불행한 결혼으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막아야겠다는 결심도 굳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인이 무관심하다는 확신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 결혼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다아시가 몇몇하지 못했던 부분은 제인이 런던에 있을 때 그 사실을 숨긴 것이다. 그 이유는 서로 확신이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은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다. 다아시는 선의로 그 일을 하였다고 해명하였다. 두 번째 해명은 다아시 아버지께서 위컴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캠브리지에 입학했을 때에도 학비를 마련해 주었고 그에게 성직을 마련해 주려고 했으며, 유산으로 1천 파운드를 남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컴은 원칙이 없고 게으름과 방종 속에 살았으며 15세인 다아시의 동생 조지아나에게 호감을 얻어 무분별하게 사랑의 도피를 하자고 유혹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조지아나가 오빠 다아시에게 그 사실을 털어 놓음으로써 일단락되었지만 위컴의 주요 목적은 조지아나의 재산 3만 파운드였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은 피츠윌리엄 대령(Colonel Fitzwilliam)이 증언할 수 있다고 다아시는 해명하였다(139-140).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의 편지를 처음에 읽을 때에는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없어서 두 번을 읽고 다아시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녀는 필립스(Mr. Philip)씨 댁에서 위컴과 처음으로 나눈 대화를 다시 기억해 내서 그가 내세운 방식이 주제넘고 부적절했으며 그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자신이 맹목적이고 불공정하고 편견에 사로잡히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른다. 나아가 엘리자베스는 살롯이 했던 말을 생각하며 제인에 대한 다아시의 설명이 옳았음을 인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엘리자베스는 제인의 감정이 깊고 열렬했지만 겉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그녀의 분위기와 태도는 시종 일관 여유로워서 실제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을 인식하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의 편지를 통해 자신이 오해 했던 부분을 인식하는 단계에 도달하고 캐서린 부인을 만나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캐서린 부인은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소문을 듣고 연락도 없이 엘리자베스 집을 방문한다. 그녀는 다아시가 자신의 딸과 이미 약혼한 상태이며 출신 성분도 보잘 것 없고 사회적 지위도 미미하고 자신의 가족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여자가 끼여든다며 예의 없이 말을 한다. 그녀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아래와 같이 밝힌다.

당신의 조카와 결혼한다고 제가 제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사이고, 저도 신사의 딸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동등합니다.

...

제 연줄이 어떻든 다아시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부인께서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

In marrying your nephew, I should not consider myself as quitting that sphere. He is a gentleman; I am a gentleman's daughter; so far we are equal.

...

"Whatever my connection may be," said Elizabeth, "if your nephew does not object to them, they can be nothing to you."(245)

이와 같이 엘리자베스는 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지위가 상승된다거나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남녀의 동등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페미니즘의 한 갈래인 자유주의 여권론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사상은 서구 사회가 봉건제에서 자본제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18세기에 생겨난 새로운 이념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본성, 이성 있으며, 만인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동등하다고 여긴다(한국여성연구소 37). 이러한 점에서 엘리자베스는 앞에서 언급한 브라운스타인의 평처럼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아시가 연줄, 다시 말해 엘리자베스의 친척관계와 배경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 캐서린 부인이 조카의 결혼에 관여할 수 없을 것이며 결혼은 자신들이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에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캐서린 부인은 귀족계급에 속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품위 없는 행동을 하므로 채프먼(Chapman)은 그 당시에 귀족계급이 미덕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악의 근원도 된다고 믿는 경향이 18세기의 신사 계층 사이에 일반화되어 있다고 설명한다(28). 그러므로 자신의 속물근성, 물질적 가치관을 더 중시하는 캐서린 부인은 결국 자신의 잣대를 타인인 엘리자베스에게도 강요하는 추악한 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캐서린 부인은 엘리자베스에게 다아시와 약혼하지 않기로 약속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이 요청에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부인이 자신의 일에 계속 관여하실 권리가 없다고 주

장하자, 그녀는 동생 리디아의 도피행각까지 들추어 자신을 모욕했다고 이야기한다. 캐서린 부인은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에게 다아시를 차지하겠다는 결심 이냐고 묻자, 그녀는 부인의 의견이나 그녀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의견에 구애 받지 않고, 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제 행복을 위해 행동할 거라고 결심했음을 알린다. 이러한 그녀의 결심은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아의 인식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 도달한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와 산책을 하면서 리디아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다아시는 다시 엘리자베스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크게 변했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대답을 하고 편지가 미친 효과와 자신의 편견이 점차적으로 사라진 과정을 설명할 정도로 고정된 자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아시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다시 재인식한다.

제인이 빙리에게 무심하다고 믿었다는 말은 즉각 거짓이라고 판단했고, 혼사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반대 사유가 된 사실에 대한 설명에는 너무 분노가 솟구쳐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의 글은 뉘우침이 없고 거만했다. 오만하고 무례할 뿐이었다.

...

편지를 내려놓고 상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양쪽 진술의 개연성을 판단해보려 했지만 도무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양쪽 다 자기주장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편지를 읽었다. 하지만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사건이 좀 더 분명해지면서, 어떻게 분석해도 다아시 행동의 추악함을 덮을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사건이 새로운 시각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렇게 하면 그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

그녀는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다. 다아시를 생각할 때도 위کم을 생각할 때도, 자신이 맹목적이고 불공정하고 편견에 사로잡히고 어리석었다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

처음부터 한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어 기뻐고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해서 분개했던 거야. 그래서 두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스스로 선입견과 무지를 키우고 이성을 몰아냈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는 나 자신을 몰랐던 거야.“

His belief of her sister's insensibility, she instantly resolved to be false, and his account of the real, the worst objections to the match, made her too angry to have any wish of doing him justice. He expressed no regret for what he had done which satisfied her; his style was not penitent, but haughty. It was all pride and insolence.

...

She put down the letter, weighed every circumstance with what she meant to be impartiality—deliberated on the probability of each statement—but with little success. On both sides it was only assertion. Again she read on. But every line proved more clearly that the affair, which she had believed it impossible that any contrivance could so represent, as to render Mr. Darcy's conduct in it less than infamous, was capable of a turn which must make him entirely blameless through out the whole.

The extravagance and general profligacy which he scrupled not to lay to ...

She grew absolutely ashamed of herself—Of neither Darcy Nor Wickham could she think, without feeling that she had been blind, partial, prejudiced, absurd.

...

Pleased with the preference of one, and offended by the neglect of the other, on the very beginning of our acquaintance, I have courted prepossession and ignorance, and driven reason away, where either were concerned. Till this moment, I never knew myself.(141-144)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엘리자베스를 데이비드 잭클(David Jackel)은 지성과 감성이 균형 있게 조화된 인물이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아시를 재인식하고 자기 가족의 예의 부족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평한다(14). 이러한 그녀의 고백은 그녀가 현명한 인물이므로 자신의 아집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판단하며 솔직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에 다아시는 자신이 오만과 자만 속에서 성장하였고 우쭐거리고 가족 바깥의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엘리자베스 덕분에 자신의 결점을 인식

하고 겸손을 배웠다고 이야기 한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자아 인식 과정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관계, 다아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성숙을 가져온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 문학숙은 이들의 결합이 계급과 재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지성, 감성, 상호이해심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135). 그녀의 주장은 이들의 관계가 신고전주의의 우주적 조화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인간 사회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았고 사회와 인간이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조화 법칙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신고전주의 작가들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우주적 조화를 위해 인간이 겸손해야하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하며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녀 관계에 이 주장을 적용시키면 우주적 조화란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개선시키는 두 이성인의 동등한 결합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논자는 이 관계를 엘리자베스의 자아 인식에 초점을 둔 것이다. 오만한 다아시와 편견을 가진 엘리자베스가 대화와 편지를 통해 자신의 결점, 상대방의 장점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한 도덕적 성숙의 결합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결합에 결정적으로 엘리자베스의 발전적인 자아 인식이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이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아시의 자아 인식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의 자아 인식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그녀 자신의 야의 활동, 특히 산책과 여행이다. 미키 해리슨(Mickey Harrison)은 엘리자베스가 산책을 가부장적 사회로부터 독립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한다(2). 이 주장은 그녀가 이 활동을 통해 여성이 예의범절, 교양을 갖추고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제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기회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일보 문권모 기자는 걷기 운동 효과에 대한 기사를 작성 하였는데 이 효과는 엘리자베스에게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산책은 걷기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이다. 이 운동은 육체적으로는 체중 감량, 정신적으로는 정서적인 안정과 마음의 치유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어들어 뇌가 건강해지며 정서가 안정되는 것이다. 이 운동은 만성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각종 질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해 준다. 그리고 힐링 효과는 특히 자연 속에서 걸을 때 더 커진다. 자연은 강력한 심신안정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효과는 엘리자베스가 자연 속에서 산책할 때 나타난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최근의 사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평가하는 기회를 가지며 판단력을 향상시킨다.

캐서린 앤더슨(Kathleen Anderson)과 티파니 본더벡(Tiffany Vonderbecke)은 걷는 것이 등장인물의 마음을 명확하게 해 주고 사회적 유대를 위해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반면에 육체에 활력을 되찾게 해 준다고 주장한다(1). 이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예로 엘리자베스의 네더필드로의 여행이다. 엘리자베스는 언니 제인이 빙리 양의 정찬 초대에 응했다가 아파서 그 집에 머물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네더필드로 마차도 없이 혼자 걸어서 갔는데 그녀의 모습을 본 허스트 부인과 빙리 양은 경멸의 태도로 그녀를 대하는 반면에 다아시는 엘리자베스의 걸어 온 행동에서 그녀의 힘과 결단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혼자 네더필드로 걸어 간 행동은 타인을 의지하지 않는 독립심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며 아픈 제인을 걱정해 주며 먼 거리도 마다 않고 달려 온 자매애를 보여 준다. 그리고 걷기를 통해 얻은 그녀의 활력은 다아시의 호감을 사는 계기가 되고 타인과 교류하고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힐링 효과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는 산책을 하다가 다아시를 만나고 허스퍼드에서 지내는 생활, 혼자 산책하는 취미, 콜린즈 부부의 행복을 바라보는 견해에 대한 화제를 나누어 서로에 대해 알아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의 펨벌리(Pemberley)로의 여행이다. 펨벌리의 자연 경관은 매우 아름답고 다아시의 저택은 웅장하였다. 엘리자베스는 이 장소에서 다아시에 대해 편견에 사로 잡혀 오만하게 판단하였고 그동안 자신이 선입관과 무지를 따라서 이성이 없었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녀는 다아시의 저택으로 무심코 걸어 들어갔다가 그의 가정부 레이놀즈 부인(Mrs. Reynolds)를 통해 다아시가 최고의 지주이자 최고의 주인이라는 말을 듣고 그의 인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리고 다아시의 초대로 엘리자베스는 다시 펨벌리를 방문하게 되고 다아시에 대한 싫은 감정이 사라지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걷기는 엘리자베스에게 건

강과 활력을 주고 나아가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랑이라는 힐링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엘리자베스는 모녀관계, 자매관계를 통해 미약한 자아 인식을 하게 되고 다아시로부터 받은 편지를 통해 다아시, 빙리, 위컴 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인식하게 되고 산책과 여행을 통해 걷기를 함으로써 독립심과 판단력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정서적 안정을 얻게 되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결심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녀의 결심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제한된 삶에서 벗어나 더 큰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IV. 결 론

제인 오스틴은 낭만주의 시대의 최초의 가장 중요한 산문 작가로 근대소설의 사실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대표작품 『오만과 편견』에서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특히 결혼을 소재로 줄거리를 전개하였다. 이 작품은 시간이나 장소의 범위가 좁다. 시간은 현재로부터 수개월, 장소는 런던에서 몇 시간 동안 마차를 타면 갈 수 있는 시골까지의 범위이다. 그러므로 제인 오스틴은 영국 시골읍의 중상류층의 사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인물들의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따라 줄거리를 전개한다.

이 작품에서는 결혼이 소재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첫 문장에서 파악할 수 있고 18세기 결혼관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의 자아 인식과 결혼간의 관계는 크게 미성숙한 자아 인식단계, 성숙한 자아 인식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에는 순수함과 미숙함의 불완전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인과 빙리의 관계에서 본 제인의 자아 인식 단계, 비열한 야심과 무분별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리디아와 위컴의 관계에서 본 리디아의 자아 인식 단계, 조건만으로 이루어진 비낭만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샬롯과 콜린즈의 관계에서 본 샬롯의 자아 인식 단계가 있다. 후자에는 오만과 편견을 극복한 성숙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관계에서 본 엘리자베스의 자아 인식

단계가 있다.

이러한 자아 인식 단계에서 보여준 여주인공들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제인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빙리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자아의 모습을 보이며 자매애가 돋보이는 동생 엘리자베스의 충고와 다아시의 도움으로 빙리와 결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리디아는 철없고 허영심이 많은 인물로 일시적인 감정으로 위컴과 야반 도주할 정도로 이성이 결여되어 자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엘리자베스의 동생이다. 후에 다아시가 위컴에게 돈을 주어 리디아와 결혼하는데 도움을 준다. 리디아는 타인의 도움으로 집안의 수치로 간주될 사건을 그 당시 사회의 관례인 결혼으로 해결하고 타인의 질책과 소문을 간신히 넘기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샬롯은 가장 타산적이다. 그녀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의 인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사귀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경제적 안정을 위해 애정 없는 결혼을 감행하는 인물이다. 넷째, 엘리자베스는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며 다아시와의 대화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성숙한 인물이다. 여성인물들 중 그녀가 가장 자아 인식의 변화와 발전이 있는 인물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는 도덕적인 인물로 다아시에게도 영향을 주어 그의 자아 인식에도 변화를 주고 사랑도 찾는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인, 리디아, 샬롯은 미성숙한 자아 인식 모습을 보이고 엘리자베스만 성숙한 자아 인식 단계에 도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녀들은 자아 인식의 정도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특히 성숙한 자아 인식 단계에 도달한 엘리자베스는 추론 능력이 가장 강한 인물이다. 알리슨 설로웨이(Alison Sulloway)는 엘리자베스를 로크(Locke), 아스텔(Astell), 그리고 다른 계몽주의자들의 이상형인 “생각하고 생각을 그만두고 다시 생각하는 복합적인 능력의 소유자”라고 주장한다(174-175). 제인 오스틴은 아마도 자신의 작품들 중에서 이와 같은 엘리자베스를 가장 사랑하는 인물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볼 수 없는 여성상, 재치 있고, 지적이고, 아름답고,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단지 부의 척도로

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랑을 따라 가는 성숙한 자아 인식을 가진 인물로 그렸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엘리자베스보다 더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자아의 모습을 가진 여성들이 더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인 용 문 헌

- 김현숙. 「여성의 경제 행위로서의 결혼-사회적 필요성과 개인적 도덕성의 갈등」. 『19세기 영어권 문학』. 제 9권 2호. 19세기 영어권 문학회 (2005): 5-25.
- 문권모. [Outro]김연와 함께 하는 건기 운동. 2013. 5. 3.
<http://news.donga.com/3/all/20130502/54849860/1>
- 문학숙.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조화의 세계-다아시와 엘리자베스의 결혼을 통해 본-」. 『인문연구』 제 38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109-138.
- 조일현.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사회비판 전략으로서의 아이러니와 위트」. 『영어영문학연구』. 제32권 제 3호. (2006): 143-165.
- 한국여성연구소. 『새 여성학 강의』. 서울: 동녘 (1999)
- Anderson, Kathleen and Tiffany Vonderbecke. "Walking a Path toward Marriage in *Persuasion*." *Persuasions On-Line* 28. 2007.
- Austen, Jane. *Pride and Prejudic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9.
- Brownstein, Rachel M. *Becoming a Heroine: Reading about Woman in Novels*. New York: Viking, 1982.
- Chapman R. W. *Jane Austen, Facts and Problem*. Oxford: Routledge and Kegan Paul, 1969.
- C.S. Lewis. "A Note on Jane Austen." *Jane Austen*. Ed. Ian Wat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Jackel David. "Moral Geography in Jane Austen," *University of Toronto Quarterly: A Canadian Journal of the Humanities*, 47. 1977.
- Ghent, Dorothy Van. *The English Novel: Form and Func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53.
- Gooneratne, Yasmine. *Jane Aust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 Harrison, Mickey. "Walking Toward Womanhood The Maturation of Jane Austen's Heroines in *Sense and Sensibility* and *Pride and Prejudic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Dominguez Hills. Spring 2001.
- [Http://news.donga.com/3/all/20130502/54849860/1](http://news.donga.com/3/all/20130502/54849860/1). [Outro]김연아와 함께 하는 건

기 운동. 동아일보, 미디어다음, 2013. 5. 3

Leavis, F. R. *The Great Tradi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2.

Monaghan, David. "The Novel and Its Age: A Study of Theme and Structure in *Pride and Prejudice*," *The Humanities Association Review* 28. 1977.

Satz, Martha. "An Epistemological Understanding of *Pride and Prejudice*: Humility and Objectivity" Janet Todd. *Jane Austen: New Perspectives*. New York: Holmes & Meier Publishers, Inc., 1983. 171-186.

Sulloway, Alison G. *Jane Austen and the Province of Womanhood*. Philadelphia Pennsylvania UP, 1989.

박주은

주소: (330-72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번지 상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화: 041-550-5152 / 이메일: pjepark@smu.ac.

논문접수일: 2013. 9. 30. / 심사완료일: 2013. 11. 4. / 게재확정일: 2013. 11. 17.